

CEO 동경

제5대 강영일 이사장 취임식



강영일 제5대 이사장은 2월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직원에게 "투자 효율 제고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 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며 "금지과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CEO 동경

강영일 이사장 취임 현충원 참배



강영일 이사장은 임원들과 함께 2월 1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분향하고 참배했다.

50억원대 국유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은 천안 두정역 인근의 아파트건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공단 및 천안시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 당한 건설시행사가 주택법 제30조의 무상양도 조항을 근거로 무상양도 거부가 위법하다며 국유지 매입대금(공단 56억원, 천안시 58억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114억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무상양도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는 무상양도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규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국유지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도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철도건설사업에 1조2037억원 투자

- 전년 대비 6.2% 증액...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영남본부(본부장 이대균)는 올 한해 영남권 철도건설사업에 전년 대비 6.2% 증액된 1조2037억원을 투자한다.

2014년 정부 예산 중 철도건설 사업비는 '13년 6조752억원 대비 0.01% 증액된 6조758억원이며, 이중 영남권 사업비는 1조2037억원으로 '13년 대비 6.2%(704억원)가 증가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남권은 올 한해 경부고속 2단계 사업 등 6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민자사업), 울산신민안입찰도 2개 철도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경남권의 경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에 '14년도 2217억원('13년 2170억원)이 투입되어 15년 부산~일광간 복선 비전철 우선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경북권에는 경부고속2단계 신강주~포항 등 6개 사업에 전년(9063억원)보다 8.1% 증액된 9800억원이 투입된다.

영남권 철도건설사업 투자확대로 1만67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영남권 전체 사업비의 59.8%인 약 72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오송~공주) 등 2개 고속철도 연말 완공

- 2014년도 철도 메카로 발돋움하는 충청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올해 안으로 호남·경부철도 등 2개 건설사업을 완공하고 이천~충주 철도건설 및 장항선 2단계 개량, 철도종량 시험선로 구축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착공한다.

2014년도 본부 관내의 건설사업에 4217억원, 기존 운행선 시설 개량사업 510억원 등 총 47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전·충청 지역에서 생산유발 효과 5634억원, 고용유발 효과 2957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서해선(홍선~송산) 복선전철 사업도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철도노선망>

본사 사옥 회의실 개방 확대

- 더 많은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2개소 늘려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전역 동광장에 위치한 본사 사옥의 교육장,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방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회의실 2개소를 추가로 개방(12~14개소)하여 국민 편의증진과 수익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13년 공단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고객은 전년 대비 45.1% 증가한 1만4062명이었으며, 저렴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8000여 만원에 이른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편의시설 이용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만족하였으며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시설은 6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어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대강당, 사용 가능한 인원이 100여 명인 대회의실, 10~40여 명 규모의 각종 회의실과 교육장 등 모두 14개소이며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나 담당자 (042-607-3606)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전국 철도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 점검

- 240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

안전실(실장 하복수)은 해빙기를 대비하여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전국 240개소의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공사와 감리단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붕괴 위험이 높은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횡단공사 및 가설도로를 집중 점검하여 위험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실 관계자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해빙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남구청과 철도부지 공동 활용으로 지역주민 편의 향상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경인선 제물포역과 도원역 구간 철로변 유휴부지 2400㎡를 인천시 남구청과 공동으로 녹지와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부는 철로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남구청은 2015년 말까지 통행로, 마을마당, 쉼터, 체육시설 등 환경을 정비하여 공원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부지 공동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철도부지의 무단점유, 쓰레기 투기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본부, 노후 철도시설 개선 착수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용)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전선을 비롯한 노후시설 8개소에 대한 시설 개량사업을 진행한다.

시설개량사업은 풍수해 및 재난 사고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설개량사업의 대상지는 산사태 우려가 높았던 경전선 이양~능주간 258.2km 인공 등 3개소의 낙석방지 공을 비롯해 노면록 확보 및 시면봉고 방지를 위한 경전선 예당~륙간 221.6km 인공 등 5개소의 응벽설치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한 철도시설물을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량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